

문 대통령 방북·정상회담 8월 15일 광복절 성사 가능성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관심
정치권, 1차 회담 열린 6월 15일 전후 관측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 통해 방북 시기 조율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받으면서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방북 시점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 대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화답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문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와대가 아직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한 명확한 수용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

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온데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 초청으로 남북대화 국면의 물꼬가 트인 만큼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으로 좁히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북 핵 문제로 북미 관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 대표단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역할 구도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은 단순한 남북회담을 넘어 복합적인 의도가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바로 시기다. 김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뵙으면 좋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치권 내에서는 광복절인 8월 15일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15일 전후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이 된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각각 진행했다.

만약 올해 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정권 출범 3년, 5년 차 때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나주시체육회가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경기를 관람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문 대통령·김여정 제1부부장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응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공동으로 응원했다.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경기 시작을 앞두고 단일팀 선수들이 링크에 나와 소개가 이어지자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또 남북 단일팀 선수가 단독드리블로 일대일 찬스를 만들었을 때 문 대통령 내외와 김 특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골에 성공하지 못하자 박수를 치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특사 등은 단일팀이 큰 점수 차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서 손뼉을 치며 단일팀 선수들을 격려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을 만나 “오늘은 꼭 쉬고 다음 경기 잘합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라고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마지막 회동이 국립극장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는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11일 저녁 서울국립극단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공연 시작 전 김 특사 등 북한 대표단, 국내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데 이어 공연이 끝나고 출연진을 격려하고 북측 인사들을 환송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평창올림픽 사전 리셉션 현장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처음 만난 이후 사흘 동안 북한 대표단과 5차례 잇달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맨 오른쪽)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과 함께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1차전 남북단일팀 대 스위스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반드시 성사” vs 한국당 “위장평화에 매몰”

‘방북 요청’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 정치권은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 초청을 환영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 방점을 찍었고, 바른정당은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져

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 발 한 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이 초대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침을 윤택한 것인지 국민은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서 “평화의지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체육인들 원정 응원

시체육회·도체육회 경기장 찾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체육인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람하고 응원하는 등 대외의 성공개최를 위한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과 10일 양일간 강릉 컬링센터와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총 250여명으로 구성된 응원단 중 동구와 남구체육회는 8일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경기를 관람했고 서구와 광산구 체육회는 강릉 컬링경기장을 찾아 한국과 중국의 예선전을 관람, 응원했다.

픽 불을 조성에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폐막일인 25일까지 전남도체육회는 20개 시·군에서 총 1300여명을 조직해 경기장을 찾았다. 도체육회는 대회 개막일인 9일 여주시체육회가 평평 휘트니스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를 관람했다. 이후 11일까지 고흥과 신안군체육회가 컬링경기를, 나주시체육회가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슬론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영하의 날씨 속에서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특히, 안도군체육회의 경우 12일 열리는 남북 단일팀인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의 스웨덴과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어서 북한 응원단과의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화순군체육회가 루지 여자상금경기를, 장성군체육회가 봅슬레이 경기를 관람하는 등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지역의 체육인들에게 접하지 못하는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과 새롭게 조성된 경기장 등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 지역체육인들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응원단을 꾸렸다”며 “역사적인 대외인 만큼 올림픽

은 남북 단일팀인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의 스웨덴과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어서 북한 응원단과의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화순군체육회가 루지 여자상금경기를, 장성군체육회가 봅슬레이 경기를 관람하는 등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지역의 체육인들에게 접하지 못하는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청 또한 입장권 3500매를 구입해 각 시·군에 지원하는 등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계획이다.

입야·전·담·바로 삽니다!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NPL 등 특수물건만 취급★

경매·투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를 먼저 보시고
▶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 광주여대 : 3월 6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6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6일(화) ~ 2018년 6월 12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公國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 2018. 3. 6.(화)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8. 3. 10.(토) 09:10 (특급반)	· 월요일 오전반 : 2018. 3. 5.(월) 09:10 (초급반) · 금요일 오전반 : 2018. 3. 9.(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8. 3. 10.(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헌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원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 010-3614-4160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